

弘報室 : (02)
6050-3602~5

* 이 자료는 4/26(火)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4/25(月) 11:00부터

※ 문의 : 기업정책팀 강석구 팀장(6050-3461), 김현철 선임연구원(6050-3462)

국내기업 95% “뉴노멀시대 동반성장 패러다임 변화 필요”

- 대한상의 대·중소 400개 기업 조사 ... 기업 절반 ‘대·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모델’ 원해
- 대한상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도와주는 피처링형 → 함께 경쟁력 키우는 듀엣형으로 변화해야”
- 동반성장정책 평가 ... “동반성장정책 경제에 긍정적” 65%, “대·중소기업 협력 잘되고 있어” 62%
- 동반성장 개선 과제 ... 대기업 ‘협력사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

국내기업의 대다수가 뉴노멀 시대를 맞아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동반성장 방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이 ‘대·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사<대기업 2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추진성과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9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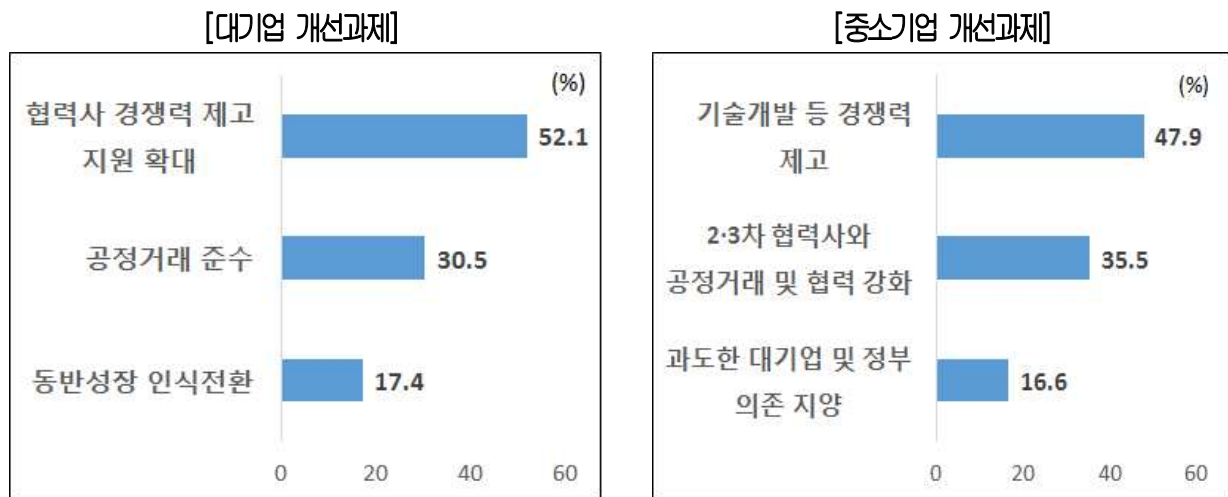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49.5%)은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 거래관행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를 선택한 기업이 34.3%이고,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를 답한 기업은 16.2%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이 중소기업 지원과 보호, 대기업 거래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면서 “저성장 등 뉴노멀시대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대·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역시 기업들은 대·중소기업 모두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림1〉 동반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구체적으로 응답기업의 52.1%가 ‘협력사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를 대기업 개선과제로 응답했으며, ‘공정거래 준수’(30.5%), ‘동반성장 인식전환’(1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47.9%),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협력 강화’(35.5%), ‘과도한 대기업 및 정부 의존 지양’(1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회의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방향을 세 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동반성장 1.0 모델은 ‘중소기업 지원’ 성격이 강했다. 정부의 주도 아래,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은 1차 협력사에게 시혜성 지원을 제공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동반성장 2.0 모델은 ‘중소기업 보호·대기업 거래관행 개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여 적합업종제도 도입, 하도급 제도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 거래관행개선이 강화되고 동반성장 참여자가 1

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향후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모델로 동반성장 3.0을 제시했다. 동반성장 3.0 모델은 민간이 동반성장을 주도하며 공동가치창출활동을 강화해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 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동반성장 패러다임 변화

	동반성장 1.0	동반성장 2.0	동반성장 3.0
시 기	2005년~2010년	2010년~현재	미래
모델명	중소기업 지원형	중소기업 보호·대기업 거래관행개선형	대·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형
특 징	▪ 대기업 협력사 시혜성 지원 ▪ 대기업-1차협력사 중심 ▪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 대기업 협력사 지원 확대 ▪ 2·3차 협력사로 확산 ▪ 중소기업 보호·대기업 거래관행개선 강화	▪ 공동가치창출 활동 강화 ▪ 기업생태계 전반으로 참여 확산 ▪ 대·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추진방식	정부 주도	정부·민간 공동	민간 주도

대한상의는 “지금까지 동반성장 방식이 대기업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피처링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쟁력을 키워가는 듀엣방식이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동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근본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지난 10여년의 정부정책과 경제계 노력으로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국내시장에 국한하면 갈등의 요소가 크다”면서 “이제 규제나 일방적 지원보다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성과를 함께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므로 기업네트워크의 글로벌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동반성장정책 평가 ... “동반성장정책 경제에 긍정적” 65%, “대·중소기업 협력 잘되고 있어” 62%

한편, 동반성장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5.2%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34.8%>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유로 ‘동반성장 중요성 인식’(36.6%), ‘중소기업 성장 및 양극화 해소에 도움’(28.2%), ‘대기업 거래관행 개선에 도움’(17.6%), ‘대·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17.6%) 순으로 답했다.

기업규모별로 긍정적인 이유가 달랐다. 대기업이 ‘동반성장 중요성 인식’(43.0%)을 긍정적인 이유로 가장 높게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성장 및 양극화 해소에 도움’(33.3%)을 가장 높게 꼽았다.

<표> 동반성장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유

구분	동반성장 중요성 인식	중소기업 성장 및 양극화 해소 도움	대기업 거래관행 개선 도움	대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도움
전체기업	36.6%	28.2%	17.6%	17.6%
대 기 업	43.0%	23.7%	11.8%	21.5%
중소기업	29.2%	33.3%	24.2%	13.3%

대·중소기업 협력정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62.2%가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잘 안되고 있다’ 37.8%>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3.5%가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변화없다’ 34.3%, ‘악화되고 있다’ 2.2%>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에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요구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순협력관계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도 대·중소기업이 공동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6. 3.14 ~ 3.21

□ 응답기업 : 제조업 400개사(대기업 200개사, 중소기업 200개사)

□ 조사방법 : 전화 및 팩스조사